

혁신성장 날개 달고 도약

도, 도내 25개 연구개발 기관장 간담회 개최 연구성과 도내 기업대상 실증·시험체계 구축

전북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R&D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에 거점을 둔 R&D 기관들의 인력,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25개 R&D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전북도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4개 국립연구기관과 10개의 정부출연 연구원 등 크고 작은 50여개의 R&D 혁신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대전을 제

위하고 전국 최다수의 연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국가 R&D 예산도 최근 5년간 2조 6천억 규모로 전국 최고수준의 성장세(25.1%)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들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성과가 산업에 확산될 수 있는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5G 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도내 첨단산업의 기반 조성에 도내 연구개발 기관들과 손잡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기반 지역 특화형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전라북도의 먹거리산업 발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도 산업정책을 재 설계하고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도내 연구기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도는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부문과 미래 먹거리산업을 연계한 신산업창출 및 생태계 조성부문의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전북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도의 독창적인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국제와이즈먼 전북지구 차담회

국제와이즈먼 한국전북지구 지사는 차기총재(송하진도지사 왼쪽) 및 임원들이 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차담회를 갖고 있다.

전북창조혁신센터, '수요피칭마루' 정기IR 매월 개최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투자를 원하는 도내 기업들을 위한 수요피칭마루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투자유치를 원하는 도내 스타트업들의 상시적 투자유치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아이템과 관련분야의 투자자들을 소규모 매칭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치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벤처투자유치를 원하는 초기기업(창업 7년 이내)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정기적 수요일에 열린 사업은 기업의 투자설명회(IR) 및 1:1 상담회, 투자교육 및 세미나 등 내실 있는 투자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같이 열린 예정이다. 도내 창업유관기관 추천트랙 및 신청트랙으로 진행되며 우수IR발표기

업은 센터의 후속 투자원스톱지원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첫 4월 1차 수요피칭마루는 24일 오후 2시에 센터에서 열린다. 5개사(더 데움, 유니드북, 스마일엔비, 엔씨팅, 그린로드)의 투자설명회와 1:1상담회, 엑셀러레이터 크립톤 양경준대표의 특별 강연, 전북스타트업 연합회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지원본부 투자팀(063-220-8914, 8922)으로 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에 아시아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공사·KT·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 공동협력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22일 서울 소재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주)케이티(KT),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은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모이는 아시아 최고의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협약식에서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고희성 새만금개발공사 본부장, 박운영 KT기업사업부부장, 조석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단장과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개발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엿본 글로벌 IT 기업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KT의 협력이 이뤄져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 새만금의 매력적인 입지 여건을 알리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협력 ▲네트워크 관련 컨설팅 제공 ▲용지 및 인프라 마련 ▲제도개선·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 및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개발청은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 이를 지원하는 물류·R&D(연구·개발) 시설 및 네트워크 기반 등을 단계적으로 집적화할 계획이다. 먼저, 1~2년 내 글로벌 ICT 기업 1~2곳(200~300MW)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통신 인프라 등 데이터센터 입주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 2030년까지는 약 2GW(축적장 400배) 규모를 목표로,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대하고 아시아 주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광케이블망 구축, 유지보수 및 물류, R&D, 제조시설 등을 직접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운영 KT기업사업부장은 "새만금은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인 만큼, KT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으로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새만금을 첨단 미래 도시로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단지가 구축될 경우, 고용창출과 함께 IT와 연계된 도시개발,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아하데이 축제서 보훈홍보관 운영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는 최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아하데이 축제장에서 '민주화정신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보훈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날 보훈 홍보관에서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특별사진전, 나라사랑 OX퀴즈 대회, 우리지역 현충시설 홍보 풍선배부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찾은 많은 이

들에게 민주화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정신을 함양했다. 특히,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교실에서만 배우던 어려운 역사를 재미있게 퀴즈로 풀어나가 공부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었다며 즐거워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전북 소득 역외유출 연간 4조원... "대응 필요"

전북지역에서 한해 수조원의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기업 본사 유치와 함께 지역회화 등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2일 193번째 이슈브리핑인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을 통해 전라북도의 소득 역외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전북도는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소득 중 7.6%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유출 지역 중

에서 가장 낮은 규모로 소득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유출 규모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및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기업 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내 사업체 중 본사 비중은 95.2%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95.4%와 유사한 수준으로 점유하고 있으나 매출액 비중은 53.2%로 전국 평균

63.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공장 및 지사의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라북도 주민들의 소득 일부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상품의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전라북도 내에서의 지역 상품권 소비 활성화 정책은 매우 의미있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내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지역소득은 현재보다 6%의 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 '박차'

공공시설 내진보강 확대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

전북도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지진 대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경상북도 울진군 등남동쪽 38km 해역에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한반도 지진이 총 20회 발생했으나, 다행히 도내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진계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현재

까지 전북 지역은 총 79회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실제 발생추이를 보면 1970년대 4회, 1980년대 4회, 1990년대 14회, 2000년대 34회, 2010년대 23회 등 계속해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가장 큰 지진은 규모 3.9로 익산(2015년 12월), 무주(2008년 1월)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2018년

216억원, 2019년 182억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율을 45.4%에서 48.5%로 향상시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에 지진 옥외대피소 1,003개소(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원 등)를 지정하여 모든 옥외대피소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는 등 빈틈없이 옥외대피소를 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내진보강사업을 통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